

[기획]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제2부 '남몰래 흐느끼는 그녀들'

<10> 짓눌러오는 절대빈곤

기름값 없어 세 아이와 함께 '냉방살이'

무안군 무안읍 허름한 단칸방에서 세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비아트리스(37·필리핀 출신)씨 가족은 올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다.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39만 원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해, 단 한 번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딸 미란(12) 이가 생일선물로 사달라고 한 '1천 원짜리 인형'도 '너무 비싸' 사주지 못했다.

이주여성들이 이처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상대자인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은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결혼으로 인해 진 빚까지 갚아야 하는 실정인 데다, 이주여성과 한국 남편, 남편의 가족 등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아트리스씨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재를 손질하고 있다. '올 봄에는 영어회화 과외자리가 생겨 생활비라도 벌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요즘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다.

지난 2001년 국제결혼을 통해 담양에 정착한 베트남 출신 리티 후엔(28)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돈이 없어 밖에도 못 나가요. chili 한 벌도 한철을 나는 때가 많고요.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 고향에는 가 볼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서 베트남을 다녀오는 데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남편이 수천만 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모님에게 결혼 초 꼭 한 번 30만 원을 보내드렸을 뿐 그 이후로 전화로 안부만 전하고 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던 연락이 와도 눈물만 흘릴 뿐이다. 병원에도 거의 가보지 못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아무리 아파도 꼭 참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찾아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이 빈곤이라는 늪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주여성 상당수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다,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희망이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005년 기준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경우 이주여성 가정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

리고 있으며, 특히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무려 44.2%에 이르는 등 대다수 이주여성 가정이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다수 이주여성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조사 대상의 18%가 '치료비가 부담돼'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때도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던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보장제도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오남 교수는 "최근 들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빈곤 문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빈곤은 이주여성 가족 전체의 문제로서 다뤄져야 하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기고

세심한 배려로 그녀들에게 웃음을



박혜자

작년 말을 기준으로 전남으로 시집와 살고 있는 이주여성은 3천537명이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3천755명이며,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를 합하면 이주여성 가족은 대략 1만5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우리 농촌에서 다시금 어린이를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문 닫기 일보직전의 농촌학교를 살려내기도 한다. 초등학교 영어강사나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가이드로 활약하는가 하면, 마을잔치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하면서 모처럼 지역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내기도 한다. 정을 주고 싶어도 정을 줄 가족이 없어 우울했던 우리 농촌총각들에게 화복한 가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한다. 우리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이주여성들이 적지 않다.

지난 2005년 전국에서 최초로 전남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당시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였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로 시집살이에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자기네 나라보다 잘 산다는 말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시집 왔지만 우리네 농촌생활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시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이주여성에게 가족의 생계를 떠맡기기도 한다. 가족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욕설과 폭력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3년 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단체회원들이 한국의 진정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결연을 추진해 왔다.

작년 가을 영암에서 열린 '이주여성가정 한마음대축제'에서는 이주여성가족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이주여성 모국의 노래와 춤, 패션쇼 등을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이나 문화교육 등도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이주여성의 인적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주여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이주여성지원센터도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는 이주여성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남편이나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업이거나 각종 단체에서도 이주여성을 지원하거나 교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사와 의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이주여성과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통역지원이 가능한 협력병원을 지정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여성도 포함됨으로써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을 지연시키거나 자립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의도는 좋지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여기저기서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들을 집 밖으로 몰려낼 경우 오히려 정서적인 안정과 가정 내 정착을 저해할 우려는 없지 않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세를 갖추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글로벌마인드를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전남도 복지여성국장)

이주여성 가정 53%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매일 끼니 걱정 숨막히고 아파도 병원 못가
사회보장체제도 미흡... 희망없는 삶 이어져

교육·정보제공으로 소득 높이는 길 제시

교정직특채 시험 5월 13일
1. 선발예정인원 : 총 360명 (남자 329명, 여자 31명)
2. 시험 과 목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3. 시험 일정
4. 메가합격시간표(현재이론반진행중 3월29일개강)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할
Tel: (062)973-9174, 016-757-8800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빌딩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증개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법원경매매입담당)
▶아파트 ▶숙박시설 ▶농지 ▶대기업(원룸) ▶근린상가 ▶대기업(원룸) ▶공장